

진도군, 집중 호우로 전복 1430만마리 폐사

504mm 기록적 폭우에 저염분화...251억원 피해 “참모자반·새우·넙치 등 수산물 전체 확대 조사”

집중 호우로 민물이 바다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유입되면서 진도군에서 전복이 대량 폐사에 2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진도군에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504mm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저염분화로 추정되는 폐사 전복 피해 규모는 19일 현재까지 76어가 16,000칸에서

양식하는 1,430만마리로 조사됐다. 진도읍 전두·정룡·산월마을 여촌계의 양식 전복이 집중적으로 폐사가 발생해 국립수산물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최근 현장을 방문했다. 또 전남도와 진도군은 어민 피해를 조사했으며, 국립수산물연구원 폐사

체 등을 수거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어민들은 “많은 비로 인한 바닷물의 저염분화로 폐사가 진행되는 전복의 경우 피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시간이 갈수록 전체 폐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복 폐사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립수산물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저염분이 지속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폐사가 이루어지므로 양식장 예찰 등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전복, 참모자반, 새우, 넙치 등 수산물 전체로 확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어가당 최대 재난지원금 5,000만원 외에도 ▲가두리 피해여가 치패·중패 입식비 국비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하강 가능한 그물망 설치비 국비 지원을 전라남도 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집중호우 침수 피해 축산농가 지원 예비비 1억5천만원 투입 침수 축사 깔짚(톱밥·왕겨) 지원 추진

장흥군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축사 침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깔짚(톱밥, 왕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은 축사 면적의 30% 이상이 침수되어 가축 질병과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침수 축사 내 신속한 깔짚 교체를 위해 장흥군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군과 장흥축협이 예산

을 부담하여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 침수가 신고된 한우사육 340농가를 대상으로 1두당 깔짚 100kg씩 100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흥군 장흥군수는 “피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이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집중호우 피해까지 더해져 실의에 빠진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유치로 학교에 ‘활력’

농촌유학사업 조례 제정...면단위 학교살리기 추진단 구성

강진군이 강진교육청(교육장 최광희)과 협력해 2학기(9월)부터 2021년 전남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전남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전남도 이외 도시 학생들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해 생활하는 프로그램

으로 가족체류형, 농가홈스테이형, 센터형으로 구성된다. 교육청은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2기 유학생을 모집했으며 강진군에서는 10여개 농가와 읍면마을 유학센터가 함께 한다. 군은 유학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3월, 13개과로 구성된 유

학 추진단과 면단위 학교살리기 추진단을 구성해 학교 살리기 사업 등 참여 농가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가족체류형 농가 발굴을 위해 작전면 소재지 농촌휴양관 금가네를 리모델링해 유학 마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강진군민장학재단에서도 5월부터 농가홈스테이형 농가에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하고 있으며, 7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주니어 보드’ 운영 젊은 직원과 소통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군정 운영 반영

완도군은 조직문화 개선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젊고 열정이 넘치는 직원 중심의 ‘주니어 보드’를 8월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니어 보드(Junior board)’는 참신한 의견과 젊은 시각을 반영하여 일하

는 방식 및 조직문화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 모임으로, 각 부서 추천을 받아 80~90년대생 젊은 직원 20여명으로 구성한다. 주니어 보드는 앞으로 월 1회 정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군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가감 없는 의견 제시를 위해 제안자를 기록에 남기지 않고, 대표가 취합하여 총무과에 의견을 전달하며, 제안 의견에 대해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니어 보드는 ‘할 말 하는 열린 소통을 주도하는 주체다.’이다”면서 “생생한 현장 정보와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우철 군수는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활력 있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해남군,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건립 선정 사업비 100억원 확보...배추 등 노지채소 수급조절 청신호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은 생산·가격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류에 대해 산지에서 농산물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광역단위 수급조절이 가능한 출하조절시설 건립은 전남권에서는 처음이다. 출하조절센터는 화원농협을 사업 주체로 해 화원면 청용리 일대 4만 966㎡의 부지에 저온시설 6,600㎡, 예냉시설 396㎡, 사무실 및 위생실 661㎡로 건립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겨울배추를 비롯해 전국 최대 노지채소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출하시설 조성으로 반복된 산지폐기와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하향식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탈피해 먼저 정부에 출하조절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농림부와 전남도, 국회 방문 등을 방문해 정책적인 공감대 확산에 적극 노력해 왔다. 명현관 군수는 “배추, 양파 등 노지채소류의 수급 조절은 물론 1회 최대 2,000톤의 물량을 비축하는 전남 서부권의 정부원료비축기지로서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